고막 주위 피부 절개 '최소침습수술'

건강 바로 알기
내시경 귀수술

남기성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만성중이염·전도성 난청 등 질환
외이도 통해 내시경 삽입 치료
통증·흉터 적고 회복기간도 빨라

조선대병원 남기성 이비인후과 교수가 만성중이염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내시경 귀수술을 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최근 모든 수술법에서는 기존 수술법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면서 절개 부위 등 수술시 환자의 몸에 가해지는 영향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최소침습수술'이 각광받고 있다. 복강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 범위가 귀 수술 분야까지 넓어지면서 내시경을 이용한 다양한 귀 수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조성일·남기성 교수팀에서도 내시경을 통한 귀 수술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내시경 귀수술(Endoscopic Ear Surgery)은 만성중이염, 전도성 난청과 같은 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외이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 귀 질환을 치료하고 청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최소침습수술'이다.

기존 현미경 귀수술은 수술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이도 피부를 세로로 길게 절개하거나, 귀 뒤쪽 피부를 절개한 후 귀를 앞으로 젖히고 수술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절개 부위가 커서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흉터가 남으며 회복 기간도 짧지 않다. 또한 수술 시 관찰 가능한 시야가 내시경에 비해 좁아서 가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내시경 귀수술은 고막 주위의 피부만 절개하고도 현미경보다 더 넓은 시야 확보로 중이(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의 내부 공간) 내 구조물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상처가 적게 남으며 회복 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밖에서 절개 부위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효과가 뛰어나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합병증률은 현미경 귀수술과 비교해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고막생착, 진주종 제거 및 청력개선에 임상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잇점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기술로 판명되면서 지난 2017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채택되었고, 현재는 많은 병원에서 내시경 귀수술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내시경 귀수술도 한계점은 있다. 한 손으로 수술해야 하고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처가 어려우며, 2D 시야이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경우 깊이감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유양동까지 병변이 진행된 경우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에 맞는 적합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입원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듣기'

화순전남대병원, 환자경험 설문

병원 입원환자들은 '매일 1회' 의사와 만나 '현재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듣기'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때는 '수술 전후'이며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격려'해주기를 바랐다.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신명근)은 최근 '입원환자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33명의 의견을 들었다. 이 조사는 환자들이 생각하는 입원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모든 직원이 공유해 환자의 기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입원 환자들은 의사와 1일 1회 정도 만나기를 바랬고, 면담 시 가장 원하는 것은 현재 상태나 치료 과정,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한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이었다. 위로와 공감이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는 '수술 전 후'와 '통증이 있을 때'를 꼽았다.

환자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병원' 이란 질문에는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방역에 철저한 환경', '응급상황 대처가 잘되는 환경'을 제시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모든 직원이 공유해 고객 서비스를 높이고자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 경험의 날' 캠페인을 벌였다.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입원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경험과 기대를 파악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설문조사와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모든 직원이 환자들이 느끼는 경험을 공유해 환자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조선대병원, 위암·유방암 수술 잘하는 병원 선정

전대병원, 위암 수술 잘하는 병원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5회 연속 '위암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됐다. 또 조선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7회 연속 '유방암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평가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1월~12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 구성 여부 ▲수술, 방사선치료 시행률,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검사 기록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등을 지표로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암 발생률 1위인 '위암'과 여성암 발생률 1위인 '유방암'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적정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 국민이 스스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9년 원발성 위암 1~4기로 진단받아 내시경 절제술, 위절제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입원환자를 치료한 전국 20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5차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각각 100점 만점을 획득,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기록했다. 조선대병원은 2019년 유방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7차 적정성 평가'에서 만점인 100점을 얻어 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3D프린팅 전문기업 커스메디와 MOU

의료분야 협력·기술 교류

전남대병원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센터장 윤택림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국내 3D프린팅 전문기업 ㈜커스메디(대표 고종욱)와 의료분야 3D프린팅 R&D 협력 및 기술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체제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윤택림 센터장과 고종욱 대표를 비롯한 3D프린팅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3D프린팅 공동연구 및 기술 개발 ▲협력 과제 발굴 논의 및 공동 연구과제 수행 ▲시설·장비 공동 활용 ▲연구인력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기술세미나 개최 등으로 지속적인 연구 교류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윤택림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외 의료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3D 프린팅 분야에서 산업기술과 의료분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연구개발 가속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센터장은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가 갖추고 있는 3D프린터, 가공·시험 분석 장비 등 약 40종 장비 시설을 바탕으로 전남대병원의 의료 인프라, 의료진의 아이디어, 전문 연구업체의 기술력 등을 결합하여 공통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분야 3D프린팅 응용 기술과 소재 및 다양한 정보·지식을 공유하며 해외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아스트로 바이러스' 장염 급증…"예방백신 없어 주의해야"

구토·설사 등 위장관 감염 유발
영유아 집단시설 위생관리 필요

광주에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아스트로 바이러스' 장염환자가 증가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 시설 위생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함께 매주 설사 환자 검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번달 수집된 표본 104건 중 51건(49%)에서 장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해(14.6%)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절반을 넘는 26건은 아스트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특히 5세 이하 영유아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4월 말까지 수집된 아스트로 바이러스 전국 발생률은 13.3%로 최근 5년 같은 기간(3.2%)보다 10.1%P 증가했으며 광주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됐다.

아스트로 바이러스는 주로 5세 이하 연령에서 구토, 설사 등 위장관 감염을 유발하며 예방 백신이 없다. 주요 전파경로는 분변, 경구 감염 환자의 대변으로 배설물의 위생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오염 우려가 있는 문고리, 장난감 등 소독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건 당국은 당부했다.

김태순 수인성질환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로바이러스 집단발생은 성인에서 2014년 정수기물 오염으로 인한 보고만 있었을 뿐 영유아 발생사례는 없다"면서도 "다만 오염된 물과 환경에 의한 대규모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손 씻기와 문구리, 장난감 소독 등 위생수칙 준수, 급식 개시 전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